

‘밸류업 수혜’ 증권사?... 6곳 중 5곳은 공시 이후 주가하락

키움증권, 3.89%↓... 최대 하락폭 증시 펀더멘털 부진에 전반적 쇠퇴 DB금융투자, 안내공시 후 10.68%↑

금융지주를 제외하고 올해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증권사 6곳 중 5곳의 주가가 공시 이후 하락했다. 당초 증권주는 저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으로 꼽히면서 밸류업 수혜주로 분류됐지만 주가는 부진했다. 상장사 중 가장 최초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키움증권의 하락폭이 가장 크며, 중소형사 중 선두로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DB금융투자가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해 5월 28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를 발표한 이후 이달 14일까지 주가가 3.89% 떨어졌다.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증권사 중 공시 이후 주가 하락폭이 가장 크다.

키움증권의 밸류업 자율공시는 앞서 3월에 발표했던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비교해 구체화되거나 보완된 부분이 거

〈밸류업 공시 참여 증권사 주가 현황〉

증권사	밸류업 공시 유형	공시 날짜	주가 등락률 (각사 공시일부터 1월 13일까지)
키움증권	자율공시	2024-05-28	-3.89%
미래에셋증권	자율공시	2024-08-22	-2.92%
DB금융투자	안내공시	2024-08-30	10.68%
DB금융투자	자율공시	2024-09-05	7.61%
NH투자증권	안내공시	2024-08-30	-1.83%
NH투자증권	자율공시	2024-12-19	-3.32%
유안타증권	자율공시	2024-12-10	-0.19%
현대차증권	안내공시	2024-12-24	-3.94%

/한국거래소

의 없다는 ‘졸속 공시’ 지적을 받았었다. 실제로 자율공시 다음날부터 3거래일 동안 6.35% 올랐지만, 이후 12거래일만에 공시 날짜 증가였던 12만5800원을 밀돌았다. 최근 밸류업 2차 계획을 공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공시 시점을 확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4일에는 현대차증권이 밸류업 안내공시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6일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주들의 불만을

샀던 만큼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현대차증권의 주가는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들렸던 11월 26일부터 밸류업 공시를 냈던 12월 24일까지 12.96% 하락했다.

NH투자증권도 지난해 12월 19일 밸류업 자율계획을 공시한 후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다. 2024년 8월 30일 안내공시 이후 자율공시 전까지는 주가가 2.12% 상승했지만, 자율공시 이후 14일까지 3.32% 떨어졌다. 과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주당 배당금 최저 한도를 책정한 부분이 투자자들의 아쉬움을 산 것으로 풀이된다. NH투자증권은 밸류업 공시에서 기본배당금 500원을 제시했는데, 2023년에는 800원, 2022년에는 700원이었다. 주주환원책으로 제시된 최소배당 기준이 오히려 낮은 것이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기본배당 500원의 최소 배당수익을 보장하며, 사업성과를 고려한 추가 배당으로 업계 최고의 주주환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자본효율 최적화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국내 증시 상승 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워낙 증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안 좋았다 보니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 같다”며 “밸류업 공시, 나아가 자율공시와 안내공시 여부로 인해 주가가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상승한 증권사도 있다. DB금융투자는 중소형사 중 최

초 밸류업 공시 기업으로 밸류업 안내공시 이후 14일까지 10.68% 올랐다. 상 상인증권, SK증권 등 중소형사들이 실적 부진과 함께 주가가 급락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DB금융투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2023년 1.3%에 머물던 별도 자기자본이익률(ROE)을 2024년 5.7%, 2027년 10.3%까지 확대한다는 전략과 함께 별도 주주환원율은 2024년부터 바로 40% 이상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주환원에는 자사주 매입이 포함돼 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상고하저 패턴에 따라 하반기 실적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별도 주주환원율은 40%, 배당성향은 31%로 예상된다. 이에 기반한 2024년 예상 배당수익률과 총 주주환원 수익률은 각각 5.6%, 6.8%”라며 “주주가치 중심의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과 적정 주주환원 규모 확보,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는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에서 밸류업 관련 스토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신인·월드투어 예고’에 들쭉이는 엔터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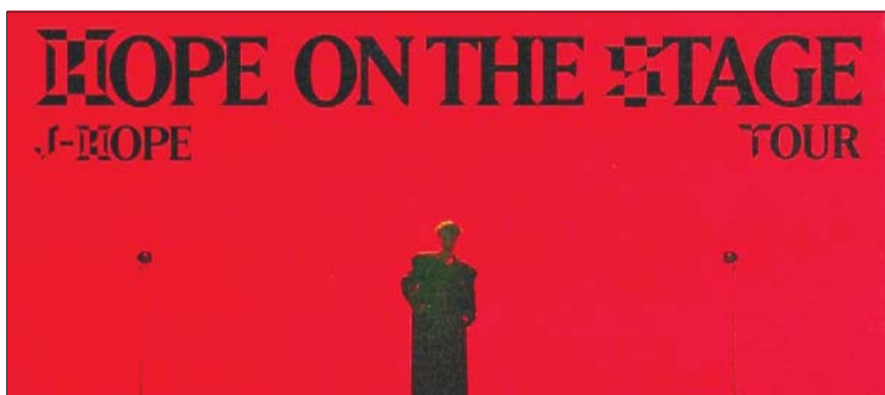
하이브, 에스엠, JYP, 와이지엔터 연초 대비 평균 10.77% 주가 올라 신인 데뷔, 제이홉 월드투어 등 예정

새해 들어 국내 주요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의 주가가 상승세에 올랐다. 신인 아티스트들 데뷔와 인기 그룹의 컴백 예고에 투심이 몰리는 모습이다. 이에 증권사들도 향후 엔터주의 주가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15일 2511.92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한때 2520선까지 올랐지만 2,496.81로 장을 마쳤다. 전 거래일보다 0.59포인트(-0.02%) 내린 수치다.

다만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4사의 주가는 모두 상승했다. ▲하이브 22만 2000원(+1.14%) ▲에스엠 7만 7300원(+0.39%) ▲JYP엔터테인먼트 7만 6000원(+0.26%) ▲와이지엔터테인먼트 4만 9050원(+0.20%) 등으로 주가가 소폭 올랐다. 이날 기준 이들 네 개 엔터기업의 연초 대비 상승률은 평균 10.77%를 기록 중이며, 지난해 1월 상장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POP포커스’ 상장지수펀드(ETF)도 3개월 전보다 27.94%나 오른 수익률을 달성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준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엔터주는 연초 상승세를 지켜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은 ‘HOPE ON THE STAGE’를 통해 서울, 브루클린, 시카고, 멕시코 시티, 샌안토니오, 오슬랜드 등 총 15개 도시에서 31회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빅히트뮤직

낸 셈이다.

연초 엔터주 전반에 훈풍이 분 이유는 주요 기획사 중심으로 오래 준비해 온 신인 아티스트가 대중에게 공개됐기 때문이다. JYP엔터가 선보이는 7인조 보이그룹 ‘킵플립’이 오는 20일 데뷔를 앞두고 있다. 지난 13일 미래에셋증권은 JYP엔터에 대해 올해 실적 증대가 기대된다며 목표가를 기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2.5% 상향하기도 했다. 에스엠도 8인조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Heats2Hearts)를 다음달 24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 하이브 산하 ‘빅히트 뮤직’ 소속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 월드투어 일정도 공개됐으며, 와이지엔터의 베이비몬스터 역시 올해 데뷔 첫 월드투어를 앞두고 있어 주가 부양에 기대

감을 모으고 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025~2026년 BTS 월드 투어는 60회차 360만 명의 모객 규모가 예상된다”며 “BTS 멤버 제이홉의 상반기 월드 투어의 총매출은 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PER 27배인 하이브 주가는 38배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규연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엔터 산업을 대표하는 4개 엔터사의 12개월 선형 주가 수익비율은 24.5배”라면서 “이는 코스피의 시가총액 가중평균 주가수익비율인 12.7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높은 밸류에이션은 대체로 투자자의 진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카카오페이증권, 종합계좌 수 700만개 달성

연금저축, 2개월 만에 10만개 기록

카카오페이증권의 누적 종합계좌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700만개를 돌파했다.

15일 카카오페이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시된 연금저축 서비스는 출시 2개월 만에 10만개 계좌를 달성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2020년 2월 종합계좌를 처음 선보인 바 있다. 카카오페이증권 측은 출시 당시 간단한 계좌 개설 절차와 소액 펀드 투자 서비스인 ‘동전 모으기’를 내세우며 빠르게 초기 사용자를 확보했고, 2023년 3월부터는 연 5%(세전) 예탁금이용료 혜택으로 계좌 개설 수 증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종합계좌 수는 2023년 1월 560만개, 작년 1월 620만개로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 12월에는 700만개를 넘어섰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종합계좌는 주식,

/허정윤 기자

펀드, 연금 등 카카오페이증권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향후 상품 라인업 확대에 따라 종합계좌에 간편하게 상품을 연결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의 연금저축 상품은 종합계좌 보유 사용자들이 손쉽게 연계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이에 출시 두 달여 만에 10만개 계좌를 달성했다.

카카오페이증권 측은 “이른 시일 내 종합계좌 1000만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카카오페이와의 협력을 강화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 및 혜택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특히 ‘해외주식’과 ‘주식 모으기’와 같은 핵심 서비스의 확장을 통해 종합계좌 활성화는 물론 신규 사용자 유치까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신한투자증권, MTS ‘주주 우대 서비스’ 오픈

투자 기업 물품·서비스 구매 시 혜택

신한투자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신한 SOL증권에 ‘주주 우대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주 우대 서비스는 특정 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때 투자 본인의 혜택 이외에, 그 기업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주주로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최초로 시행하

는 서비스로 주주로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최초로 실시간 잔고에 기반한 주주 확인 및 쿠폰 발급·사용 시스템을 IR큐더스와 함께 제공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주주 우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하은 기자

한투증권, 퇴직연금 적립금 16兆 돌파

2개월 만에 1兆 늘어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16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15조원을 넘긴 후 2개월 만의 성과다.

15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15조8184억원으로, 2023년 말 12조9601억원 대비 22% 증가했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의 202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23%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이 각각 30%, 60%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3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 주요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과 위험BF1은 1년 수익률 26.56%를 기록하며, 올해 3분기 연속 증권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약 800개에 달하는 ETF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상품과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의 비대면 전환에도 공을 들였다. 지난해 디지털 연금부를 신설해 카카오뱅크 등 대형 금융플랫폼과 손잡고 IRP 계좌 개설 제휴를 확대했다. /허정윤 기자